

종교교육학연구 제44권. pp.75-90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2. 28.

통일교 교육론의 성찰과 유교*

이 재 일

선문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통일교 교육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보완 가능성을 탐구한 것이다. 현재의 통일교 교육론에는 타락성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서술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일교가 지닌 유교적 요소의 활성화를 논의하였다. 먼저, 통일교와 유교의 관계를 연구한 문헌을 살펴보고, 통일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일교와 유교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통일교 교육의 확장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통일교 교육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와 유교는 하늘의 도리에 합당한 인간의 윤리를 강조하여 자기수양과 교육의 필요성을 말한다. 둘째, 선진유교의 효 교육은 통일교의 효 교육으로 수용되어 있다. 통일교는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리를 효로 인식하고 있다. 성리학의 천리와 인육 개념은 통일교의 본성과 타락성 개념과 유사하므로 통일교인은 성리학적 수양론을 수용하여 교육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교와 유교는 가족 중심으로 사유한다. 유교의 가족 중심적인 사유를 탐구하면 통일교의 교육론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주제어: 통일교의 교육론, 효, 본성, 타락성, 천리, 인육

I. 서론

한국의 신종교는 한국사회의 전통사상을 토양으로 삼아 이를 재해석하면서 출현하였다. 한국의 전통사상은 무교, 유교,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그 중에서 유교와 불교는 체계적인 사상과 논리로 한국의 전통사상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 이 논문은 2012년도 선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유교와 불교가 한국의 신종교 형성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신종교는 주로 조선시대 말,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에 출현하였다. 이 시기에 출현한 신종교들은 조선사회를 주도했던 유교 즉, 성리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¹⁾ 통일교는 한국의 전통사상을 기독교를 중심으로 재해석한 종교²⁾ 또는 기독교와 유교를 재해석하여 출현한 종교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는 서양의 기독교 전통을 이으면서도 동양의 유교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³⁾

그러면 이러한 종교전통은 통일교에서 어떻게 만나고 있으며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 이 의문을 필자는 교육적 문제로 구체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통일교 사상에서 유일신 신앙과 인간 성장론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또한 어떻게 연관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서양의 종교가 궁극적 실재에 대한 믿음과 복종을 중시한다면, 동양의 종교는 궁극적 경지의 체득과 수행을 중시한다는 점에 근거한 질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통일교의 교육론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이끈다. 즉, 궁극적 실재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전통에 있는 통일교가 인간 성장론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검토하도록 유도한다. 통일교 교육론의 요점은 『통일사상요강』⁴⁾의 교육론에 기술되어 있다. 통일교의 교육론은 성경 창세기 1장 27-28절에 근거한다. 인간은 하나님과 닮은 상태로 창조되어 3대축복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지닌 존재라고 보고, 이 3대축복 개념을 기반으로 교육의 이념과 형태와 교육적 인간상을 체계화한 것이다. 기독교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여 교육학적으로 서술한 것이 현재의 통일교 교육론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점에 유의하여 연구자는 유교의 수양론을 원용하여 현재의 통일교 교육론을 보완하는 가능성을 탐색해본다.

이를 위해 먼저 통일교와 유교의 관계를 탐구한 문헌을 살펴본다. 또한 동서양 종교의 특성에 비춰본 통일교의 특성을 신론과 인간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통일교의 교육론을 진단해보면서 확장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유교의 교육론을 분석하여 통일교의 교육론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동학은 천(天)을 인격적 상제로 인식했으나 도덕적 근거로 삼지는 않았고, 대종교는 인본주의, 천인합일 사상, 충효윤리, 수신·술성의 수양론, 주역적 세계관에서 유교와 유사하다. 증산교는 유교의 지(知)를 덕성지지와 건문지지로 이해하여 중시했고, 원불교는 본체론, 인의정신, 예악사상, 대동사회의 측면에서 유교와 유사하다. 정규훈, 「한국민족종교에 미친 유교의 영향 -동학, 증산교, 원불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29 (서울: 동양철학연구회, 2002), 7-17쪽; 김용휘, 「유교와 동학 -종교 체험을 통해 달라진 유교와의 차별성-」, 같은 책, 31-56쪽; 정영훈, 「대종교와 유교」, 같은 책, 57-82쪽; 이성진, 「유교와 원불교」, 같은 책, 83-114쪽; 천병돈, 「유가와 증산사상」, 같은 책, 115-144쪽.

2) 조동일, 『우리학문의 길』(서울: 지식산업사, 1997), 189쪽.

3) 중국의 불교(대승불교)는 성리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정혜정, 『동학의 심성론과 마음공부』(서울: 모시는사람들, 2012), 17-45쪽. 성리학을 포함하는 유교와 불교가 한국의 전통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므로, 불교는 통일교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종교라고 할 수 있다.

4)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서울: 성화출판사, 1993).

II. 기초적 논의

1. 선행연구의 검토

통일교는 기독교계 신종교로서 경전, 교리와 이념, 의례 등 여러 측면에서 기독교의 전통을 잇고 있다. 통일교가 기독교의 형식과 내용을 수용한 면이 많기 때문에 통일교와 기독교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되어있다.⁵⁾ 이와 비교하여 볼 때, 통일교와 유교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통일교의 이념에는 유교의 개념과 사상이 여러 측면에서 수용되어 있어서 양자의 관련성을 논의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양자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또한 유교의 천도, 지덕, 인행, 예 등의 개념을 통일교의 사상과 비교하면서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거나, 통일교와 성리학의 관점을 신과 태극 및 이기론, 본심과 명덕, 천과 인격신 등의 주제로 논의하였다.⁶⁾ 한편, 통일교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유교적이므로, 유교적 관점에서 통일교를 더욱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견지에서 통일교와 유교의 실천성, 의례, 가족을 주제로 양자를 비교하기도 하였다.⁷⁾ 그리고 통일교 사상과 주자학의 형이상학을 비교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⁸⁾

이러한 논의에는 유교와 기독교의 비교가 시사점을 준다. 유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려면 양자 사이의 접촉점을 찾아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유교와 기독교는 상대방에 대한 물이해로 갈등하다가 1884년 한불수호조약 체결 이후 서로 무관심한 상태를 유지하여 왔으나 근래에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⁹⁾ 한동안 양자 사이의 접촉점을 찾기 어려웠으나 이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면서 비교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¹⁰⁾ 최근에는 유교와 기독교를 넘나드는 연구를 통해 생태학, 페미니즘, 종교수행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¹¹⁾

기독교의 개념을 동양철학에 연결하여 이해하는 통일교의 사상은 성서가 지닌 신앙의

5) 이재석 편, 『개신교와 통일교』(서울: 성화사, 1979); 초교파기독교협회, 『천주교 개신교 통일교 신학의 대화 I』(서울: 성화사, 1979); 김영운, 『통일신학』(서울: 주류, 1983); 김영운, 『조직신학개론』(서울: 국제크리스찬교수협의회, 1982); Kim Young Oon, *Unification Thought and Christian Theology*(New York: Golden Gate Publishing Co., 1976); M. Darrol Bryant and Susan Hodges, ed., *Exploring Unification Theology*(New York: Rose of Sharon Press, 1978); Henry O. Thompson, *Unity in Diversity*(New York: The Unification Theological Seminary, 1984).

6) 장기근, 「통일원리와 동양철학」, 성화사편집부, 『통일원리에 관한 학문적 조명』(서울: 성화사, 1981), 203-272쪽; 장기근, 「통일원리와 동양사상」, 성화사편집부, 『통일원리연구』(서울: 성화사, 1981), 67-105쪽.

7) 황필호, 『통일교의 종교철학』(서울: 생각하는 백성, 2000), 84-103쪽.

8) 주재완, 「통일교 사상과 주자학의 비교연구」, 『신종교연구』 24 (2011), 211-241쪽.

9) 오강남,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 『기독교사상』 395 (1991. 11), 144-161쪽.

10) 변선환 역(줄리아 칭), 『유교와 기독교』(철곡: 분도출판사, 1994).

11) 이정배,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 그 한국적 전개 -평가와 전망을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49 (2004).

신비를 인간의 마음에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서양의 철학적 개념과 모순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과도 조화된다.¹²⁾ 통일교는 유교적 맥락에서 성서해석학을 적용한다. 『원리강론』은 유교적 용어로 성서의 가르침을 표현하고 성서로 하여금 유교적 삶과 가치를 말하도록 하며 성서에 대한 서양인의 관점을 확장해준다.¹³⁾

2. 동서양 종교의 특성

기독교와 유교의 전통이 통일교에서 만나는 현상을 논의하려면 동서양 종교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서양의 종교는 신현적 종교와 성현적 종교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신현적 종교에서 궁극적 실재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부정적 특성을 지닌다. 성현적 종교에서 궁극적 실재는 초자연적 원리나 규범으로 표현되고 모성적 특성을 지닌다. 전자는 서양의 종교에 해당하고, 후자는 동양의 종교에 해당한다.¹⁴⁾

신현적 종교에서 신과 인간은 이원론적 관계구조를 이룬다. 신은 인간을 간섭하여 규범, 봉헌, 순종, 믿음 등을 요구한다. 신앙이란 인간이 신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의 공동체는 신의 권위와 계율, 이에 대한 실천적 결단과 헌신을 중시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성현적 종교에서 인간은 원리, 자연, 우주, 도, 등으로 표현되는 궁극적 실재와 조화하거나 합일하려 한다. 궁극적 실재와 인간을 하나이면서 둘이라고 본다. 이러한 종교 공동체는 조화와 순응의 윤리를 따른다. 자비로운 포용성, 궁극적 실재와의 합일이나 체득을 위한 수행을 중시한다. 공동체 구성원은 포용적이고 관용적이다.

이러한 접근은 동서양의 사유를 A형 논리와 E형 논리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과 유사하다. A형 논리는 전체가 부분의 합이라고 보고 전체와 부분을 구분한다. 이원론, 기계론, 선형적 사고방식 등의 문제점을 지닌다. E형 논리는 역설의 논리로서 상보성, 상대성, 유기체성으로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다. 두 논리를 동서양의 종교문화에 적용해보면, A형 논리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위계가 존재하고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는 서양종교에 해당하고, E형 논리는 궁극적 실재와 세계의 엄격한 구별이 없는 동양종교에 해당한다.¹⁵⁾

서양의 종교는 A형 논리를 따르는 신현적 종교로서 신에 대한 믿음과 복종의 신앙을 강조하지만, 동양의 종교는 E형 논리를 따르는 성현적 종교로서 신성한 존재가 되기 위한

12) Sebastian A. Matczak, "God in Unification Philosophy and the Christian Theology," in *A Time for Consideration: A Scholarly Appraisal of the Unification Church*, ed. M. Darrol Bryant and Herbert Richardson (New York: Edwin Mellen Press, 1978), p.236, 248.

13) Andrew M. Wilson, "Biblical Hermeneutics in Divine Principle: The Context of Confucianism," in *Hermeneutics and Horizons: The Shape of the Future*, ed. Frank K. Flinn (New York: Sharon Press, 1982), p.21.

14) 정진홍, 『종교문화의 이해』(서울: 청년사, 1996), 제4장 그리고 161-178쪽.

15) 김상일, 『동학과 신서학』(서울: 지식산업사, 2000), 21-36쪽.

수양을 강조한다. 서양의 종교는 인간에 내재한 천부적 요소를 덕성 또는 영성으로 이해한다. 천주교는 인간의 천부적 도덕능력인 덕의 수행으로서의 수덕이나 영성수련을 강조하고, 개신교는 인간의 영적 성품인 영성의 계발에 초점을 둔다. 불교와 유교 등의 동양 종교는 마음공부를 강조한다. 불교는 고정관념, 집착, 번뇌를 그치고 본래마음을 관찰하여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것을 중시한다. 유교는 군자(君子)의 삶을 모범으로 삼고 수기(修己)를 강조한다. 성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천리와 인욕 또는 도심과 인심으로 구분하고 마음의 함양과 조절을 위한 수양론을 정립하였다.

통일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 가운데 성숙한 인격을 함양하고자 한다. 통일교는 복귀 섭리역사에 나타난 중심인물의 승리적 삶을 본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가르친다. 이는 성현을 본받는 수양을 강조하는 유교의 가르침과 유사하다. 성리학이 이기적 욕망을 버려야 순수해진다고 가르치듯이, 통일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희생함으로써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통일교는 유교처럼 인간관계에서의 덕성에 가치를 둔다. 지성과 창조성 같은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신에 대한 충성, 부부간의 신실, 부모의 사랑, 효 같은 가치를 중시한다. 『원리강론』은 유교적 가치가 신과 인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서에 적용될 때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교인은 성서의 신 중심적 관점으로 유교의 주요 개념을 해석할 때 그 인문적 가치가 더욱 빛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는다.¹⁶⁾

3. 통일교의 신론과 인간론

특정 종교의 교육론은 그 종교의 근본 사상이나 이념에 근거하여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주로 본체론과 인간론에 근거하여 교육론이 형성된다. 통일교의 교육론도 통일교의 본체론과 인간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론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과 본연의 세계 그리고 인간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교는 하나님을 우주의 본체로 이해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로고스로서 모든 존재의 궁극적 근거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심정, 원리와 법도, 성상과 형상, 초월과 내재의 하나님이다. 그의 본질은 상대와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기뻐하려는 심정이다. 심정의 하나님은 이성성상(二性性相)으로 존재하신다. 이성성상이란 동일한 존재의 상대적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과 양성(陽性)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있다. 이를 인간에게 적용하면, 전자는 마음과 몸의 구조를 말하고, 후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한다.¹⁷⁾ 심정의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였다.

통일교에서는 초월적 신관과 함께 내재적 신관이 강조된다. 하나님의 인격적 측면으로

16) Andrew M. Wilson, 앞의 글, pp.8-14, 19-20.

17)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서울: 성화출판사, 1995), 22-24쪽.

사랑과 심정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공의, 부동의 동자(動者), 전능의 의지, 질서와 법칙, 우주적 힘, 이성 등의 차원을 넘어서는 표현이다. 심정의 하나님은 세상사에 민감하여 기뻐하고 슬퍼하시는 분으로서 인간세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과정신학처럼 통일교의 신학은 하나님을 단순히 전지전능자로 정의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을 심정적 관계성을 지닌 존재로 본다. 우리가 응답하는 태도 여하가 역사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신을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내재적 존재로 이해한다면 동양과 서양의 종교가 수행과정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¹⁹⁾ 내재적 신관을 강조하는 통일교는 인간과 세상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각하고자 수행과 교육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둘째, 통일교의 인간론은 성경의 창세기 1장 27절에 근거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독교적 인간이해를 수용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규정한다. 자녀인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 신인협동의 역사에 참여해야 한다. 신인관계는 협동적 관계 그리고 일체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²⁰⁾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화신이고, 이들이 온전히 성장하여 하나님의 현현이 되었다면 그 후 온 인류가 하나님의 화신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성육신의 교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자녀인 인간의 모든 삶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신의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것이다.²¹⁾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개성진리체로서 성장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실체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책임분담 완성을 통해 가능하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목적인 3대축복을 실현하여야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다.²²⁾ 3대축복을 이룬다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육신을 터로 하여 살아가는 동안 성숙하여 하나님과 심정적 일체를 이루고, 가족관계를 통해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로 성장해야 함을 뜻한다. 이는 우리의 삶이 곧 성장과 수행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목적은 인간에게는 존재목적이자 삶의 과제이다. 인간은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 자신의 책임과 노력을 다하며 3 단계의 성장과정을 거쳐 신인일체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²³⁾

18) 김영운, 『통일신학』, 82-84쪽.

19) 이재영, 「수행과정 공유를 통한 종교간 대화」, 『종교교육학연구』 20(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176-177쪽.

20) 김영운, 『통일신학』, 85-91쪽. 통일교는 하나님은 관계적이고 공감적인 존재로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궁극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화신(성육신)을 통해 인간생활에 동참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본다. 동방교회는 성육신의 신학에서 신의 창조목적은 신성의 현시(顯示)로서 인생의 목표를 신화(神化, theosis)라고 가르친다(위의 책, 78쪽).

21) 위의 책, 79-80쪽.

22)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앞의 책, 45-50, 59-60쪽.

23) 위의 책, 57, 61-62쪽; 『성경전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4장 20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마태복음 5장 48절 참조.

이처럼 창조본연의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선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 자신을 창조하며 완성해가는 존재이다. 또한 성상과 형상의 통일체이자 양성과 음성의 통일체이며, 심정과 이법과 창조성을 지닌 존재이고, 개체목적과 전체 목적을 지닌 연체이다.²⁴⁾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여 타락성을 지니게 되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랑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형제자매인 인류의 사정에 무감각하며, 삶의 터전인 자연과 사회에 대해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자녀를 잃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恨)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본연의 상태로 복귀해야 한다. 복귀과정의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서 타락 이전의 상태로 그리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먼저 타락성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복귀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본성을 계발하여 효자, 충신, 성인(聖人), 성자(聖子)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한을 해원해 드리고 창조본연의 이상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처럼 통일교는 인간을 본성적 인간, 타락한 인간, 복귀과정의 인간으로 구분하여 이해한다.

Ⅲ. 통일교 교육론의 반성과 확장

1. 통일교 교육론의 반성

교육이란 인간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도록 돕는 활동이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교육은 본성을 발휘하여 성장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실체대상이 되도록 돕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창조와 타락과 복귀의 관점에서, 교육이란 인간의 타락성 청산과 본성의 성장을 돕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의 교육론은 하나님을 닮아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하나님의 속성을 닮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인도하는 노력으로 규정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으려면 3대축복을 실현해야 한다. 3대축복은 통일교 교육론에서 교육이념이 된다. 이 교육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개체완성을 위해서는 심정교육을, 가정완성을 위해서는 규범교육을, 주관성완성을 위해서는 주관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를 교육의 형태라고 한다. 3대 교육이념에 따른 교육의 3형태를 통하여 양성하려는 이상적 인간상은 인격자, 선민(善民), 천재이다. 한편,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기에 보편교육이라고 한다. 주관교육에서는 개인의 소질과 취향에 따라 교육적 관심 영역이 다르므로 교육의 분야와 내용도 학습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주관교육은 개별

24)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앞의 책, 창조원리와 기독교론 참조;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원상론 참조.

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또한 주관교육은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의 기반 위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보편교육과 개별교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²⁵⁾

이러한 통일교의 교육론은 『원리강론』의 ‘창조원리’가 제시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의 이념과 형태 및 교육적 인간상을 서술한 것이다. 즉, 창조본연의 인간이 지닌 본성의 발현을 위한 교육적 처방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각자 주체적으로 자신의 성장에 힘써야 하고, 일상의 삶이란 배움과 수양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성장을 돕는 교육은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고, 본래 가정을 터로 하는 것으로서, 창조본연의 인간성 계발을 위한 활동이다. 또한 사랑을 바탕으로 눈물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심정의 교육이다.²⁶⁾ 통일교 교육은 인간의 완성을 추구한다. “천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²⁷⁾는 가르침처럼 교육을 통한 인간의 성장과 완성은 천국 창건의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현재의 통일교 교육론은 두 가지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성장과정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지 않아, 인격자와 선민 및 천재로 성장해야 하는 인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원리강론』에 제시된 3 단계 성장과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3 단계를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로 나누어 이해하되, 각각을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행의(行義)시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신의(信義)시대, 모심으로 의롭게 되는 시의(侍義)시대로 규정하고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이 그것이다.²⁸⁾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3 단계 성장과정 이론이 보완된 교육론 체계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의 통일교 교육론에는 타락성을 청산하기 위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²⁹⁾ 타락한 인간에게는 타락성이 본성의 발현을 가로막고 있어서, 타락성을 청산하지 않고는 본성을 계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사탄을 분립하고 메시아를 맞이하여 중생함으로써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된 후 메시아를 따라 성장하여서 창조목적 완성을 해야 한다.³⁰⁾ 이에 따라 교육은 타락성의 청산과 본성의 완성이라는 두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교육의 과정도 타락성을 청산하기 위한 복귀의 길과 본성을 계발하여 성장하기 위한 원리의 길을 거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통일교 교육론은 본성의 계발을 목표로 할 뿐이다.

지금까지 통일교 교육론이 본성적 인간이해에 근거하여 탐구되었다는 것은 최악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타락성을 극복하도록 안내하는 교육이론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25) 위의 책, 346-348, 353, 371쪽; 이재일, 『통일종교교육개론』(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05); 이재일, 「통일사상의 교육론에 입각한 교육의 사적 고찰」, 『통일사상연구논총』 15 (2007).

26) 이재일, 「성약 말씀에 나타난 교육의 의미」, 『통일신학연구』 6 (2002), 225-246쪽.

27)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뜻길』(서울: 성화사, 1978), 193쪽.

28)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191-193쪽; 전국대학원리연구회, 『통일원리교재』(서울: 전국대학원리연구회, 1985), 130, 169-171쪽; 이재영, 「통일교의 수행방법과 영성계발」, 『종교교육학연구』 28(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52-53쪽.

29) 이재일, 『통일종교교육개론』, 172쪽.

30)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241쪽.

의미한다. 필자는 여기에서 통일교 교육론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그 보완의 실마리를 통일교의 이념에 들어있는 유교적 요소의 활성화를 통해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통일교의 기초문헌인 『원리강론』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해 특히, 이성성상, 책임분담, 성장과정, 가정분위의 사유체계 등은 유교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교육적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통일교는 정체성을 기독교 전통과 관련하여 형성해왔다. 『원리강론』은 기독교의 성경을 재해석한 것으로서 조직신학적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의례와 신앙생활도 기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교 이념에 담겨있는 유교적 요소는 기독교적 요소와 조화롭게 연관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즉, 교단의 형성과정에서 기독교적 전통이 강조되면서 유교적 요소들이 경시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교의 종말론적 신앙의 문제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시대적 사명감과 지상천국 창건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는 통일교는 새롭게 나타난 진리를 선포하고 알리는 일에 전력을 다하였다. 신도의 교육도 교리교육을 위한 강의식 교육이 주류였다. 통일교 내부에서 통일교인의 신앙활동을 ‘통일운동(Unification Movement)’이라고 지칭하듯이 지금까지 통일교인의 삶은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적 요소가 강했다. 이러한 연유로 인간의 성장을 지향하는 유교적 요소는 종말론적 신앙과 조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셋째, 통일교는 지금까지 창시자의 권위와 교단 본부의 강력한 지도력에 의존해 왔다. 창립 초기부터 이러한 교회행정 구조도 유교적인 요소를 활성화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2. 통일교 교육론의 확장

통일교 교육론의 확장을 위해 원용할 유교적 요소는 무엇인가? 이를 탐구하기 위해 통일교와 유교의 교육적 접촉점을 3 가지로 살펴보자. 그것은 본체에 대한 관계적 이해, 교육에 대한 이해, 가정에 대한 이해를 핵심으로 한다.

첫째, 본체에 대한 관계적 이해이다. 통일교와 유교는 하나님이나 천(天)을 인간세상과 감응하는 실재라고 이해한다. 통일교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협조가 있어야 성취된다고 보고, 유교는 천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윤리적 삶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통일교와 유교는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며 일상의 삶이 하늘의 도리에 합당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자기수양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교에는 수양과 교육을 위한 문헌이 풍부하다. 통일교인은 자신의 일상을 수양의 과정으로 가꾸어 가는데 이러한 문헌을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에 대한 이해이다. 유교의 교육은 선진유교의 효 교육과 성리학의 경 공부로

요약된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란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도리이다. 통일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리 그리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로 효를 강조한다. 선진유교의 효 교육은 통일교의 효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수용되어 있다.

유교는 인간의 본질을 관계성에서 찾는다. 인간(人間)이라는 한자가 보여주듯이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하고 인간의 윤리적 성품을 중시한다. 유교는 인간의 본질을 인(仁)이라고 본다. 인은 사람의 마음으로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몸을 버리고 이루는 것이다.³¹⁾ 유교의 인은 사람됨의 질적 수준을 강조하는 말이다.³²⁾ 이처럼 유교는 이기적 마음을 버리고 어진 마음을 찾아 예로 드러내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규정한 예의 실천을 지향한다. 유교는 인을 실천하는 첫걸음을 효라고 본다. 효가 인을 완성해가는 근본이며, 덕의 근본이고 가르침이 나타나는 근본이다. 흔히 효의 본질을 부모봉양으로 보나 진정한 효의 본질은 부모공경에 있다.³³⁾ 유교는 인의 실천과 효의 교육이 가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남의 부모도 경애하게 된다. 그러므로 효로써 교육하는 까닭은 만인에 대한 공경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확대하여 이웃의 어른도 공경하게 된다.³⁴⁾

그러면 성리학의 경 공부는 어떠한가? 성리학의 핵심 개념인 천리(天理)와 인욕(人慾)이나 도심(道心)과 인심(人心)은 통일교의 본성과 타락성 개념과 유사하다. 타락성은 오늘날 다양한 욕망으로 나타난다. 통일교의 관점에서 욕망은 이중성, 확장성, 주관성의 3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욕망은 본심을 따르면 창조의 원동력이 되지만 사심을 따르면 파괴의 근원이 된다. 욕망은 제어하지 않으면 확장된다. 욕망은 대상을 지배하려고 한다.³⁵⁾ 성리학의 수양은 내적 자각과 외적 생활로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통일교인은 정성을 들이는 신앙생활에서 본성을 함양하고 타락성을 경계하는 단초를 얻는다. 그러므로 통일교인은 정성을 들이는 신앙생활의 영역을 확장하면 성리학적 수양방법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리학은 수신을 강조하면서 그 요체는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라고 가르친다.³⁶⁾

31) 이계학, 『인격교육론』(서울: 성원사, 1991), 90-92쪽; 『맹자』 告子(上), 仁 人心也; 『맹자』 公孫丑, 惻隱之心仁之端也; 『논어』 顏淵, 樊遲問仁 子曰愛人; 『논어』 顏淵, 克己復禮爲仁; 『논어』 衛靈公, 子曰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32) 서명석, 『사람됨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구사(九思)의 세계』, 『인격교육』 7권 2호, 2013, 79쪽.

33) 이계학, 앞의 책, 94-97쪽; 『논어』 學而,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효경』 開宗明義章, 子曰 夫孝德之本也 教之所由生也.

34) 이계학, 앞의 책, 98-99쪽.

35) 이재영, 『통일교의 욕망이해와 욕망 다스림』, 『종교교육학연구』 31(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50-51쪽.

36) 박상현, 『『심경부주』의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한 근대 수업의 성찰』, 『인격교육』 7권 1호, 2013, 48-51쪽.

즉, 본성을 함양하여 이상적 인간에 이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개개인이 주의를 집중하고 깨어있는 가운데, 내적으로 침잠하여 자기 존재를 자각하고 외적으로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욕망을 살피 조절해야 한다. 성리학은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오직 정밀히 하고 한결같이 하여 진실로 중심을 잡으라.”³⁷⁾는 『중용』의 구절에 기초하여 수양론을 전개하였다. 인간에게 있는 천리와 인욕의 관계는 매우 미묘하다. 이들을 신중하게 분별해야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할 수 있다. 성리학은 마음이 분별의 주체라고 여기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아 안정시키고 맑게 하여야 천리와 인욕을 분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곧 경(敬)이다. 경은 마음이 하나에 수렴되어 주의 집중하며 깨어있는 상태이다. 경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천리와 인욕을 분별하고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할 수 있다. 퇴계는 “성(性)이 발하여 정(情)이 될 때가 곧 한 마음의 기미(幾微)이고, 온갖 변화의 주요(樞要)이며, 선악의 분기점”이라고 하였다.³⁸⁾ 이 ‘마음의 기미’, ‘변화의 주요’, ‘선악의 분기점’에서 집중하여 존양과 성찰에 힘쓰라는 것이다.

성리학의 수양론은 결국 본연지성의 확충과 기질지성의 조절을 지향한다. 즉, 존천리(存天理) 알인욕(遏人欲)을 목표로 하며 그 방법적 원리는 거경과 궁리를 위주로 한다. 거경은 거경함양(居敬涵養) 즉, 존심양성(存心養性)으로 그리고 궁리는 성찰궁리(省察窮理) 즉, 학문사변(學問思辨)으로 이해되었다.

셋째, 가정 중심한 사유는 유교의 특성이지만, 통일교의 사유방식이기도 하다. 유교는 가정을 인간다운 삶을 실천하는 기반으로 여긴다. 마찬가지로 통일교는 가정을 터전으로 부부·부모·자녀·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 성장의 핵심이라고 본다. 그리고 가족윤리는 사회윤리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일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체계의 기본형을 담고 있고, 가정은 자녀의 인격적 성숙과 사회적 관계성 학습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본다. 가정에서 배운 교훈은 사회생활의 덕목이 되고, 인간관계를 인격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나님 중심한 가정은 개인의 중생(重生)으로부터 사회의 재건과 평화세계의 건설로 그 효능이 확대될 수 있다. 가정 중심의 윤리는 개인주의와 국가지상주의의 양극단을 피할 수 있다. 유교는 인간관계에서 인(仁)을 중시한다. 인은 상호관계에서 자라난다. 사람은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 배움의 터전이 가정이다. 서양에서는 국가를 비인격적이며 기계적으로 통제되는 것으로 보고, 사회를 소비하고 영리를 위한 사업을 하는 곳으로 본다. 유교는 사회를 확대된 가정으로 보고, 친척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접하도록 가르친다.³⁹⁾ 통일교의 가정 중심 윤리와 유교의 윤

37) 『중용』 中庸章句序,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38) 조남국 역(李滉) 『聖學十圖』(서울: 교육과학사, 1995), 80, 131쪽(第六心統性情圖. 要之 兼理氣 統性情者 心也. 而性發爲情之際 乃一心之幾微 萬化之樞要 善惡之所由分也).

39) 김영운, 『현대신학』, 93-96쪽.

리 사이에는 유사점이 많다. 유교의 윤리를 깊이 탐구하는 것은 통일교의 윤리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V. 결론

현대인의 삶은 경쟁과 물질생활에 경도되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흐름을 경시하는 경우가 많다. 학문적 경향도 대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에 치중할 뿐 자아의 성장이나 인격의 성숙을 소홀히 하고 있다. 현대인은 고등교육의 과정을 거친 후에도 마음을 살펴보며 자기를 다스리는 인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내면세계를 탐구하고 자아를 성장시키도록 안내한다. 이러한 측면은 동양종교에서 잘 드러난다. 통일교 교육론은 인간의 성장을 안내하는 이론으로서 본성의 계발과 타락성의 청산이라는 두 과제를 해결하는 교육이론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통일교 교육론은 본성 계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으로 타락성을 청산하는 교육이 보완되어야 한다. 필자는 통일교가 지닌 유교적 요소를 활성화하여 통일교 교육론을 보완함으로써 타락성 청산에도 도움을 주는 교육론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통일교가 유교의 교육적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3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본체에 대한 관계적 이해, 교육에 대한 이해, 가정에 대한 이해를 핵심으로 한다. 이 중에서 선진유교의 효 교육과 성리학의 거경궁리 공부는 큰 의미를 지닌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효 교육은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이웃 어른을 경애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모시는 삶으로 확장될 단서가 된다. 성리학의 수양론은 천리를 함양하고 인욕을 제어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데, 이는 통일교의 본성 계발과 타락성 청산 논리와 유사하다. 성리학의 수양론은 거경궁리를 방법적 원리로 삼는다. 거경이란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엄숙히 하는 가운데 또렷한 정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궁리란 이치를 살피고 사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다. 통일교의 관점에서 성리학의 수양론은 본성의 계발과 타락성의 제거를 목표로 삼고 정성을 들이는 신앙생활 교육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거경궁리의 수양론은 통일교인의 정성을 들이는 신앙생활에서 의미와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먼저, 타락성을 벗고 하나님에게 복귀해야 하고, 다음으로 본성을 계발하여 삼대축복을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 이해를 위해 편의상 그렇게 설명한 것일 뿐이고, 타락성 청산과 본성의 계발은 일상생활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각자의 삶에서 타락의 습성을 제거하고 본연의 성품을 계발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일상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논어』.
 『맹자』.
 『성경전서』.
 『중용』.
 『효경』.
 김상일, 『동학과 신서학』, 서울: 지식산업사, 2000.
 김영운, 『통일신학』, 서울: 주류, 1983.
 ———, 『조직신학개론』, 서울: 국제크리스찬교수협의회, 1982.
 김용휘, 「유교와 동학 -종교 체험을 통해 달라진 유교와의 차별성-」 『동양철학연구』 29, 서울: 동양철학연구회, 2002.
 변선환 역(줄리아 칭), 『유교와 기독교』, 칠곡: 분도출판사, 1994.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뜻길』, 서울: 성화사, 1978.
 ———,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5.
 오강남,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 『기독교사상』 395, 1991.
 이계학, 『인격교육론』, 서울: 성원사, 1991.
 이성진, 「유교와 원불교」 『동양철학연구』 29, 서울: 동양철학연구회, 2002.
 이재석 편, 『개신교와 통일교』, 서울: 성화사, 1979.
 이재영, 「수행과정 공유를 통한 종교간 대화」 『종교교육학연구』 20,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 『심정교육론 연구』, 서울: 성화사, 1989.
 ———, 「통일교의 욕망이해와 욕망 다스림」 『종교교육학연구』 31,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 「통일교의 수행방법과 영성계발」 『종교교육학연구』 28,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이재일, 「성약 말씀에 나타난 교육의 의미」 『통일신학연구』 6, 2002.
 ———, 『통일종교교육개론』, 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05.
 ———, 「통일사상의 교육론에 입각한 교육의 사적 고찰」 『통일사상연구논총』 15, 2007.
 이정배,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 그 한국적 전개: 평가와 전망을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49, 2004.
 임현규 역(오오하마 아끼라), 『주자의 철학』, 서울: 인간사랑, 1997.
 장기근, 「통일원리와 동양철학」, 성화사편집부, 『통일원리에 관한 학문적 조명』, 서울: 성화사, 1981.
 ———, 「통일원리와 동양사상」, 성화사편집부, 『통일원리연구』, 서울: 성화사, 1981.
 정규훈, 「한국민족종교에 미친 유교의 영향 -동학, 증산교, 원불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29, 서울: 동양철학연구회, 2002.
 정영훈, 「대종교와 유교」, 『동양철학연구』 29, 서울: 동양철학연구회, 2002.
 정진홍, 『종교문화의 이해』, 서울: 청년사, 1996.
 정혜정, 『동학의 심성론과 마음공부』,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2.

- 조남국 역(李滉). 『聖學十圖』. 서울: 교육과학사. 1995.
- 조동일. 『우리학문의 길』. 서울: 지식산업사. 1997.
- 주재완. 「통일교 사상과 주자학의 비교연구」 『신종교연구』 24. 2011.
- 천병돈. 「유가와 증산사상」 『동양철학연구』 29. 서울: 동양철학연구회. 2002.
- 초교과기독교협회. 『천주교 개신교 통일교 신학의 대화 I』. 서울: 성화사. 1979.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3.
- 전국대학원리연구회. 『통일원리교재』. 서울: 전국대학원리연구회. 1985.
- 한형조. 『왜 동양철학인가』. 서울: 문학동네. 2000.
- 황필호. 『통일교의 종교철학』. 서울: 생각하는 백성. 2000.
- Wilson, Andrew M. “Biblical Hermeneutics in Divine Principle: The Context of Confucianism,”
In Flinn, Frank K. (ed.). *Hermeneutics and Horizons: The Shape of the Future*.
New York: Sharon Press, 1982.
- Matczak, Sebastian A. “God in Unification Philosophy and the Christian Theology.” In
Bryant, M. Darrol and Richardson Herbert (ed.). *A Time for Consideration: A Scholarly
Appraisal of the Unification Church*. New York: Edwin Mellen Press. 1978.
- Kim Young Oon, *Unification Thought and Christian Theology*. New York: Golden Gate
Publishing Co. 1976.
- Bryant, M. Darrol and Hodges, Susan (ed.). *Exploring Unification Theology*. New York:
Rose of Sharon Press. 1978.
- Thompson, Henry O. *Unity in Diversity*. New York: The Unification Theological
Seminary. 1984.

원고접수일: 2014년 1월 13일 심사일: 2014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4년 2월 17일

연구자소개: 이재일

① 전공: 교육학 · 신학 / 소속: 선문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인성교육, 개화기의 한국교육

③ 주요논저: 『통일종교교육개론』,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 〈유길준의 종교관 변화과정과 교육개혁론〉

④ E-mail: leejaeil21@hanmail.net

Abstract

Reflection on the Unificationist Theory of Education and Confucianism

Lee, Jaeil

Sunmoon University

This paper points out the weak point of the theory of Unificationist education and investigates possibilities to make up for it. Current theory of Unificationist education does not have the way to cleanse fallen characte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I discuss activation of the Confucianism element which Unificationism had. First, I examine the studi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Unificationism and Confucianism, and watch the characteristics of Unificationism. Second, I search the possibility of expansion of the theory of Unificationist education, based on commonalities of Unificationism and Confucianism. It concludes as follows: First, Unificationism and Confucianism teach ethics which is suitable for the Heavenly way(天道), and emphasize self-cultivation(修養) and the necessity of education. Second, Unificationism accepted the filial piety education of the Pre-Chin Confucianism(先秦儒教). Unificationists consider filial piety human duty for God as well as duty for one's parents. The idea of the Heavenly principle and human desire of Sung Confucianism(性理學) are much the same with the idea of original nature and fallen nature of Unificationism.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nificationists to expand the theory of Unificationist education accepting the theory of self-cultivation of Sung Confucianism. Third, Unificationism and Confucianism are family-centered. If Unificationist search the Confucian family-centered thinking, it will be helpful to expand the theory of Unificationist education.

Key words: Unificationist Theory of Education, Filial Piety(孝), Original Nature(本性), Fallen Nature(墮落性), Heavenly Principle(天理), Human Desire(人慾)